



불완전한 식민청산과 한일역사분쟁, 그리고 동아시아평화

이신철

식민 청산

❖ 식민청산의 3단계

- ① 식민체제 해체
 - 반식민주의 민족독립운동
- ② 식민잔재 청산
 - 자주독립국가 수립
- ③ 식민주의 청산
 - 탈식민주의 평화공존운동

식민청산과 역사인식의 차이

- 역사인식의 일반적 성격
 - ◎ 역사인식의 당파성(계급성)
 - ◎ 근대역사학의 정치성
 - ◎ 민족과 국가, 지역 :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례)

American Indian History

Osama bin Laden

오키나와, 아이누, 재일조선인, 피차별 부락민, 여성, 이주노동자

...

왜 지금인가

- 탈냉전 시대

미국의 쇠퇴, 지역주도권(패권) 투쟁

- 한국의 민주화

피해자의 등장(+불건적 의식 극복)

-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무한경쟁)

-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국민만들기

- 중국의 대두

- 한반도 정세의 변화

역사분쟁의 쟁점

- 서로 다른 민족의 영웅
 - 안중근과 이토히로부미
 - 이순신과 토요토미 히데요시
- 일본군'위안부'
 - 젠더, 식민지, 전시성폭력
 - 한국군 위안부와 베트남전
- 독도(다케시마)
 - 근대이전 영토의식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
 -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근대국가의 영토 획정 과정
 - 해결방안은?

역사분쟁의 쟁점

○ 야스쿠니신사

○ 재일조선인

- ⊙ 일본에 왜 갔나?
- ⊙ 더불어 살아 갈 권리

○ 문화재

- ⊙ 문화재 반환은 실현 가능한가?

○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의 교과서들





②東京で撮影された韓国皇太子と伊藤博文



↑韓国服の伊藤博文 伊藤は1906(明治39)年に初代韓国統監として赴任したが、1909(明治42)年、満州のハルビンで暗殺された。



ハングル文字の教科書 李朝時代には普及していなかった文字ハングルを朝鮮固有のものとして普通教育にとりいれた。(朝鮮総督府 1924 年発行『普通学校 修身書』国立国会図書館蔵)

併合後におかれた朝鮮総督府は、植民地政策の一環として、朝鮮の鉄道・灌漑施設をつくるなどの開発を行い、土地調査を実施した。また、学校も開設し、日本語教育とともに、ハングル文字を導入した教育を行った。

韓国併合に関して

침략사실의
식민지배정책
미화

진실은...

- 조선총독부는 3·1운동에 놀라 문화통치 표방.
-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강화된 것은 일본어 교육. 보통학교에서 원래 필수였던 조선어 교육은 수업이 줄어들음.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 교육, 조선지리 교육 허용.
- 1938년에 '제3차 교육령' 선포로 조선어교육 사라짐.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함. 조선어는 선택과목이 됨. 그러한 사실은 무시하고, 조선인의 저항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국어교육이 마치 식민지기 전반에 걸쳐 시행된 것처럼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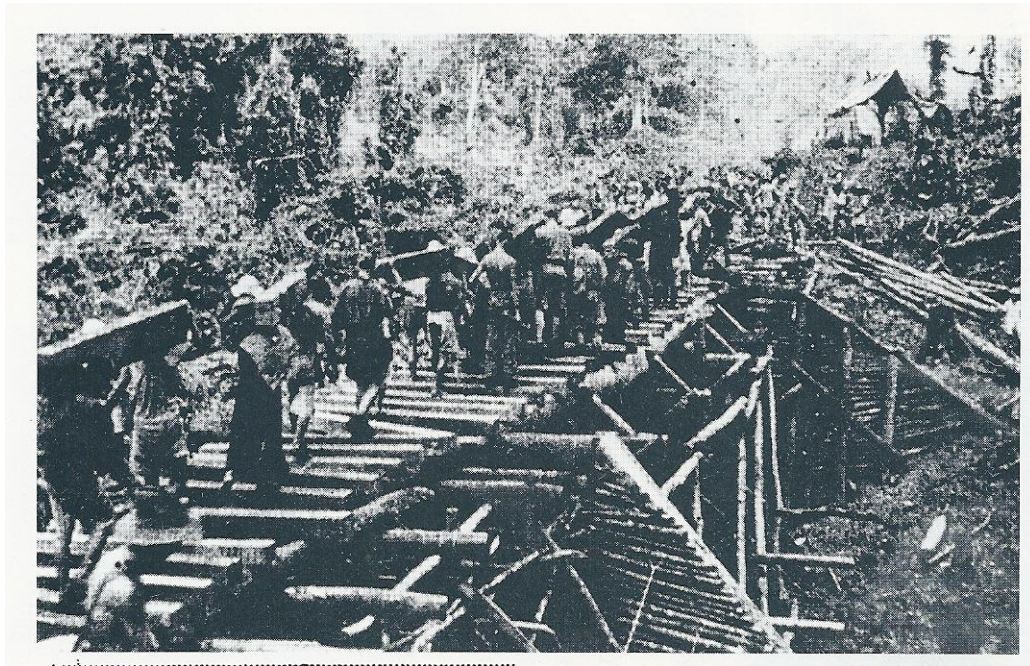
2015年 学び舎 교과서에서 부활

사라진, 일본군위안부, 기술



中国雲南省拉孟で中軍第八軍の捕虜になった4人の朝鮮人「慰安婦」(1944年9月)。右端の妊娠した女性が、北朝鮮に健在の朴永心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태면철도(타이-미안마간)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과 연합국 포로들



**일본이 전승국이 되었다면 아시아
각국이 독립되었을까?**

わが国の領域

灰色の領域は他国に占領されているわが国の領土

黄色の領域は他国に領有権を主張されているわが国の領土



* 일본 우경화 주역들의 역사활용

○ 우익세력의 논리

- 20세기 일본의 부활, 강한 일본 – 아베의 아름다운국가론 : “강한 일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와 군사활동
- 평화헌법 9조 개헌 : 보통국가 완성
- 2015년 안보법안 통과시도와 시민의 저항

○ 일본 우익정치세력의 역사관

- 자학사관(自虐史觀) 비판
-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 천황 사관

*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의 역사

❖ 오래된 꿈 : 보통국가화와 군국주의 부활

- ⊙ 제1차 교과서공격 : 1955년 자유민주당의 출현과 교과서제도 개악
- ⊙ 제2차 교과서공격 : 1982년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 표기 문제(진출과 침략)
- ⊙ 제3차 교과서공격 : 1990년대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 전방위 공격의 개시 – 제3차 교과서 공격

- 1991년 자민당의 안전보장문제간담회 :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역사인식을 바꾸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993년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 ①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은 아니었다
 - ② 종군위안부.남경사건은 날조이다
 - ③ 지금 교과서를 시정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 후지오카 노부카쓰 .1995년에 자유주의사관연구회 조직

○ 제3차 교과서 공격

- 1991년 12월 김학순 할머니, 동경지방법원에 개인보상 소송
-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요구.
- 1993년 8월 '정부조사결과' 발표 : 국가 개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모집되었음을 인정.
- 1997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기술 시작.
- 자유주의사관파, 1997년 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결성.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 요구, '자학사관' 교과서 공격 시작.
- 2000년에 후소샤에서 신청본 검정에 제출.
- 교과서 채택에서 현장교사를 배제하는 운동 전개. 학교투표제 폐지.

한(중)일 공통의 역사인식은 가능한가?

■ 국가차원의 노력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2002~2008 (2기까지 활동)
-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2006~2009 (1기)

■ 시민사회의 노력

-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단체들
- 교과서관련단체의 연대활동
- 한일, 한중일 공동교재 만들기
- 한일중 평화포럼: 2002년~
-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02년~11년
- 한중일대학생포럼
- 다양한 교사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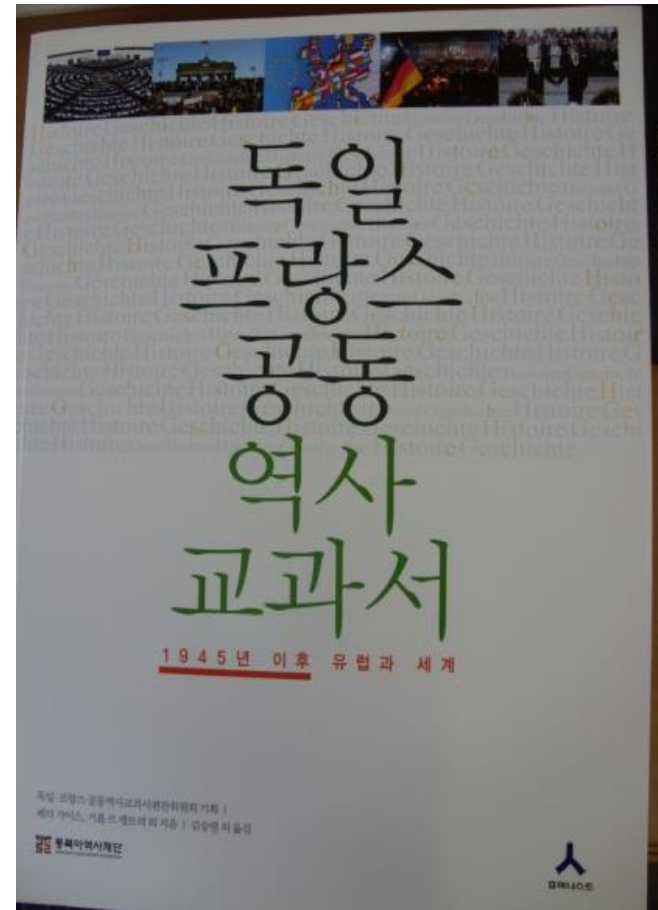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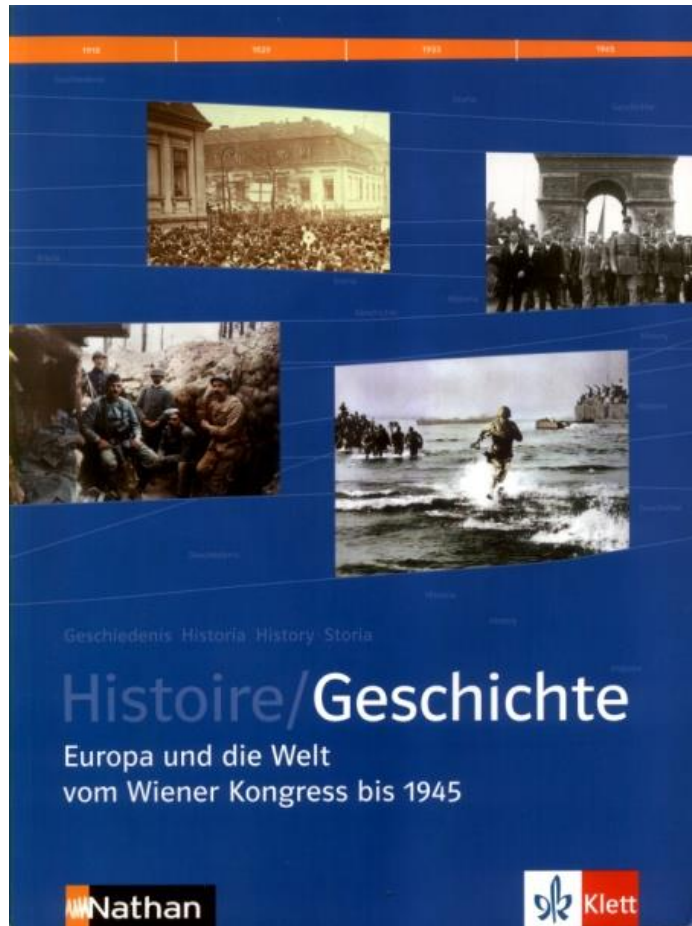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2006年제주도, 2010年千葉)

유럽의 공통 역사교과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역사교과서

동아시아평화공동체, 생명공동체를 향해

● 3·11 이후의 동아시아

- 공통의 위기의식
- 원자력발전소
- 핵무기와 평화, 북조선



- 생명공동체로서 동아시아
-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사인식의 필요성